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시·도·군·구·읍·면·자치 통한 상생발전 을 위한 사업방안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현황

부지

조

과

것

“사업구역의 광역화를
지역간 연계·협력에 있다. 초
수준은 서로 달라도 지역간 연계

어 왔는데 대체로 볼 때 각각의 단위들이
원, 권한 및 역할 등을 교환함으로써 상호
사업이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통의
로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협력하는 자치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는 물론, 초광역
하는 실용적 개념으로 폭넓게 이해할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발전사업을

가운데서 동원할 수 있는 전담의 행정체

을 통하

않 아니라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지원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광특계정
(시·군)				
광역경제권 (시·도)	540억원 (30개)	1,000억원 (46개, 신규 16개)	1,150억원 (46개, 신규 150억)	광역계정

2. 연계협력사업의 추진과정의 평가

정부에서 광역적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강조하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행정구역 단위의 투자가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첫째, 계획수립 마감, 연계협력 사업의 평가, 예산 반영 등을 염두에 두고 짧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다보니 즉흥적으로 급조된(ad hoc basis) 계획이 많아 발굴건수에 비해 사업계획의 충실도와 실현가능성 등이 매우 취약한 편이다. 협력에 의한 지역발전은 시간을 정해두고 마감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계획수립 단계에 임박해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경우, 협의조정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합의형성에 이르지 못 채, 단순한 구상 또는 제안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둘째, 연계협력사업의 선정과정이 중앙 위주의 하향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지역이나 권역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고유한 사업이 발굴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역이나 권

